

법무부, 중·베트남 등 6개국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2026년 말까지' 연장

- 6개국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올해 말까지 연장
- 출입국관리 질서 유지와 지역 민생경제 행기는 관광비자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등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15, 약 22,500원) 면제 조치를 당초 올해 6월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번 조치는 「제11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 단체관광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중국 및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방한 관광 수요가 회복되면서 단체관광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단체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약 79만 명으로 전년(약 57만 명) 대비 약 39% 증가한 반면,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이탈률은 0.07%로 전년(0.19%)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비자발급 수수료가 방한 관광객 증가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대외관계 개선, K-컬처 확산 등과 함께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방한 심리를 유도하고 관광 수요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방한 부담을 완화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출입국관리 질서 유지를 기본으로 삼으면서도 지역 관광 활성화와 민생경제까지도 챙길 수 있도록 관련 관광비자 제도를 운영·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단체관광객 입국자 현황」

담당 부서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향숙 (02-2110-4058)
		담당자	사무관	나영미 (02-2110-4059)



단체관광객 입국자 및 이탈현황('19~'25)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입국 계	772,861	57,100	0	9,533	149,352	570,752	790,505
이탈 계	944	106	0	16	502	1,090	525
이탈율	0.12%	0.19%	-	0.17%	0.34%	0.19%	0.07%

국가별 단체관광객 입국자 현황('19~'25)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입국 계	772,861	57,100	0	9,533	149,352	570,752	790,505
중국	712,732	43,983	-	-	68,058	414,019	614,040
베트남	25,984	2,243	-	2,769	24,708	70,784	74,333
인도네시아	23,288	8,632	-	4,052	28,205	33,704	40,062
필리핀	3,865	687	-	600	18,265	42,955	53,580
인도	185	-	-	32	3,714	573	1,120
캄보디아	6,807	1,555	-	2,080	6,402	8,717	7,370